

총선 D-8 '르포' - 광주 북구갑 가 보니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진영은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왼쪽)와 무소속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지난날 31일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과 우산동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후보 기호를 손으로 표시하며 행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먹고 살기도 힘든데...” “투표장 가 봐야 알지”

“강기정, 까다로운 공천 통과 의정활동 잘해”

“한화갑, 거물급 당선시키면 지역발전 도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상인들에게 선거 얘기를 듣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선거 얘기도 꼬집어내면 대부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 얘기냐”며 손사래를 쳤다. 아예 “난 아무것도 몰라”하며 고개를 돌리는 가 하면 “생각해 본 적 없다. 투표장 가 봐야 알지”라며 속내를 푹푹 숨겨놓는 상인들이 많았다. 말바우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 박 모(60)씨는 “강기정 의원이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잘했으니가 공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옆에 있던 박 씨의 부인도 “공천과정에서 장관 출신도 두 명

이나 나왔지만 강후보가 이겼다”고 거들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를 모르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 “한 전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되레 핀잔을 줄 정도로 지역 내 인지도는 높았다. 시장 안에서 생선을 팔고 있던 김 모(52)씨는 “민주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출마했다고 하니 뭔가 기대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래도 거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며 호감을 표시했다. 전남대 인근에서 만난 대학원생 박모(32)씨는 “한 전 대표의 느닷 없는 북 갑 출마 선언은 호남 정치

권의 원로로서 적당한 행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북구에서 자영업업을 한다는 이모(45)씨도 “이제 광주도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 지지의사를 보였다. 말바우시장 앞 포장마차에서 튀김과 어묵을 팔고 있던 박모(여·61)씨는 “투표장 가 봐야 알지”라며 얼굴을 돌리다가 “한 후보의 출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씨는 “강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선거 때 이 사람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한 씨가 출마한 것을 보고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강 후보 측은 지난날 31일 광주역, 신안사거리,

무등재식당 앞, 백림약국 앞에서 잇따라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같은 날 1천여 명이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한 후보 측은 최근 상승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무소속 한화갑 후보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쉽사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운하, 충분히 논의후에”

李대통령 “국민합의의 전제... 총선이슈 부적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모두 모셔다 충분히 의견을 모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등 국가원로 10여 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선거 때가 되어서 (한반도 대운하) 정치적 이슈가 됐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을 해놓고 나니까 이것도 후딱하는 줄 안다”며 “500km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선기간 일관되게 밝힌 “대운하 건설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한때 이 대통령의 대권 경쟁자였던 고건 전 국무총리는 “요즘 대운하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개적으로 실질적인 찬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흥구 전 총리는 “새 국회에

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강신석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자 “낙태의 비공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남아서 어디 맡기면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보육 및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5년안에 인구의 절반 정도는 보육(비용)을 나라가 전부 대줘서 해보자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 개혁에 언급, 이 대통령은 “골프장 허가 내는 데 770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허가 내는 동안 땅값이 오르는 데 공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만들어놓고도 그게 있는 지 없는지도 모르고 쌓이고 있다. 18대 국회가 들어서면 규제철폐를 제대로 한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는 남덕우, 강영훈, 이흥구, 박태준, 고건 총리를 비롯한 학계와 사회단체의 원로 12명이 참석, 약 1시간 30분간 이 대통령과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환담했다. /연합뉴스

이것이 변수다

②농장 공천

유권자 “후보 검증기회 잃었다” 불만

“후보자 얼굴도 모른다” 부동산 증가

‘민주 공천=당선’도 깨져 무소속 강세

“후보자들이 얼굴도 안 비쳐요. 선거때면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번처럼 (후보)얼굴 한 번 못 본 적은 없었다. 이렇게 팔사해도 됩니까.”

4·9총선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찮다. 유권자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채 후보등록이 코앞에 다가올때까지 공천을 둘러싼 계파 싸움에 열을 올렸던 민주당의 ‘농장 공천’과 후보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195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자를 확정 한 것은 지난 23일. 4·9 총선 후보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서다. 그나마 유권자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당 정책과 선거 공약은 지난 25일, 광주·전남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야야 중앙선관위와 광주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다.

후보 등록 전부터 유권자들을 위한 지역별 맞춤 공약이 제시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던 예전과 분명히 다른 상황이다.

유권자들로서는 뽑아놓고 4년 뒤 속상하지 않을 후보가 누구인지,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지를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 것이다. 후보자들이 공천에만 매달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지껏 후보자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주민들도 수두룩하다.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 배려도 없이 ‘굿이나 보고 표만 달라’는 식의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기

존 민주당에 대한 호남 기류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선거 초반 민주당에 대한 호남 주민들의 기대는 여전했다. 광주·전남지역 선거권에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정치 신인이라도 당 지지도를 업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 공천은 일종의 ‘보증서’처럼 여겨졌다.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식으로, 일단 공천권만 따내면, 후보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이 당만 보고 표를 줄 지역민들도 많다.

하지만 공천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들러리로 전락했다”, “작대기를 쫓았으니 믿고 표만 달라는 식이나”는 인식이 퍼지면서 ‘깃발만 쫓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져 민심을 흔들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농장 공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깨져 일부 지역의 경우 거물급 무소속 출마자들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50~60%에 달하는 정당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약진이 뚜렷했다. 그만큼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후보들이 공천에만 정신을 쏟으면서 부동산 유권자들도 20~30%에 이르고 있다. 무엇을 놓고 판단해야 할 지 모르는 탓에 이미 표심이 정해져 있어야 할 시점임에도 부동산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ohae Savings Bank Kwangju Branch. Text includes: '어서오십시오 고객님', '보해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 OPEN', '고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월 25일 보해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고객님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보해상호저축은행 www.bohaebank.co.kr', '본점: 광주 전라남도 북포서 영봉동11-1 Tel: 061-244-8171, 동주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서평동 238-4 대우2오빌 4F Tel: 061-372-7800'.